

박 에스더(1877-1910)의 생애와 의료선교활동

이방원*

I. 서론

한국사회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것은 개항 이후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면서부터이다. 주한미국공사가 한국에 입국한 후 곧이어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들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으면서 근대화에 필요한 교육과 의료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선교활동을 위한 초석을 세우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들 서양 선교사의 활동은 당시 한국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선교사들은 그들과 접촉하였던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을 심어주었으며, 이를 흡수한

한국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갖추게 된 한국인들은 한국을 서구화·근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박에스더’는 그러한 대표적 인물들 중 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미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해왔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의 활동이 한국 근대화에 미친 영향, 현재 교육계·의료계·사회사업계의 근간이 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연구가 집적되어 왔고,¹⁾ 근대의료 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제중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²⁾ 반면 기독교 다른 종파의 의료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1) 김승태. 한말·일제 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6 ; 강선미. 한국의 근대 초기 페미니즘연구-서양여성선교사와 조선여성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푸른사; 2005 ;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 류대영. 초기미국선교사연구:1884-1910. 한국기독교 역사연구회; 2001 ; 윤춘병. 한국 감리교회 외국인 선교사. 한국 감리교회 사학회; 2001 ; 김영재. 세계선교 동향과 한국에 대한 선교정책. 한국기독교와 역사 1997;6 ;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1997 ; 이덕주. 초기한국기독교사연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5 ; 이덕주. 한국 감리교 여성교회의 역사:1897-1990.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1991 ; 이만열. 기독교 선교 초기의 의료사업. 동방학지 1985; 46-48합집 ; 마서 헛트리. 차종순 역.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 성장. 목양사; 1985 ; 이춘란.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 선교의료활동, 1884-1934. 이대사원 1972;10.
- 2) 박형우. 제중원. 몸과 마음; 2002 ; 박형우. 세브란스와 한국의료의 여명. 청년의사; 2006; 서정민. 제중원과 초기한국기독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연세의료원 120년사 편찬위원회. 인술, 봉사

활동 특히, 여성의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여성의료를 논의함에 있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박에스터³⁾이다. 박에스터는 감리교 여성의료선교사들에 의하여 의료계에 몸을 담았고, 한국 근대의료계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에스터에 관한 학문적 연구 성과는 찾기 힘들며, ‘한국을 빛낸 여성들’ 또는 ‘근현대 여성 인물들’ 중 한명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⁴⁾ 이 외에 산재되어 있는 박에스터에 관한 기록에서도 ‘한국 최초의 여의사’라는 수식 이외에 정확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 내용도 소략하다. 특히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의 내용과 귀국 후 활동 내용은 현신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몇 건의 에피소드와 함께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박에스터의 활동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전체 삶을 조망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은 선교사들의 연례보고, 당시 선교단체에서 제작한 잡지와 단행본 등을 주요 사료로 활용, 분석함으로써 1) 박에스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 자료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2) 박에스터의 활동 중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근대 여성의료사에서 박에스터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박에스터의 삶을 조망함으로써 한국 여성의료사의 초기 모습을 복원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의료선교 활동의 기반 형성

1. 이화학당과 의식의 변화

박에스터는 1877년 3월 16일⁵⁾ 서울에 사는 광산김씨 김홍택과 연안이씨의 4녀 중 셋째 딸로 출생하였고 이름은 점동이였다. 1885년 한국에 파견된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은 김홍택의 집 근처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하였고, 김홍택은 그 중 한 명인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958-1902)에게 고용되었다. 김홍택은 아펜젤러를 통하여 여성해외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의 스크랜턴 대부인(Mrs. M. F. Scranton, 1832-1909)이 여학교를 설립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새로운 사상을 접할 수 있고 음식과 옷이 제공되는 교육기

그리고 개척과 도전의 120년. 연세의료원; 2005 ;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 3) 본문에서 박에스터의 호칭은 각 성장 시기마다 불렀던 이름을 사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본문 내용 중에 포함시킬 것이다.
- 4) 이배용. 역사속의 한국 여성들. 어진이; 2005 ; 최은희. 여성을 넘어 아낙의 너울을 벗고. 문이재; 2003.
- 5) 기존의 박에스터 관련 서술에서 박에스터의 생년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1876년(Rosetta S. Hall, *The Life of Rev. William James Hall, M. D.*, New York: Press of Eaton & Mains; 1897. 등), 1877년(노충량. *이화 80년사*. 서울: 이대출판부; 1967 ; *The Korea Mission Filed* 1911; 7-5.), 1879년(고춘섭.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금영문화사; 2001. 박에스터 언니 신마리아의 딸인 신의경 권사의 전기)으로 다양하다. 이는 한국 나이 계산법과 서구식 나이 계산법의 차이로 착오를 일으킨 듯하다. 필자는 박에스터가 미국 생활 중 호구조사서에 187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1877년이 정확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다.

관에 그의 딸 들 중 점동을 보내고자 하였다.6) 그래서 1886년 11월 김점동은 스크랜턴 대부인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의 학생이 되었다.7)

김점동은 나이 10세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이화학당에서 선교사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고,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첫째, 서양인에 대한 의식의 변화이다. 1886년 당시에는 서양과 수교를 맺기는 하였지만 일반인에게 서양인은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다. 김점동이 스크랜턴 대부인을 처음 만난 날은 몹시 추웠는데, 스크랜턴 대부인이 점동을 난로 가까이 부르자 자신을 그 속에 집어넣을 것 같아 두려워했다.8) 그러나 곧 서양 선생님의 친절한 마음을 알게 되고 선생님과 학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9) 이는 점동이 새로운 환경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자세는 이후 선교사들의 교육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도덕적·신앙적 변화이다. 김점동은 이화학당에서 한국어로 성경과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였고,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짓말과 도둑질을 혐오하게 되었다.10)

1888년 장마철인 어느 날 밤, 김점동은 방안에서 요란한 빗소리를 들으며 인간의 죄를 벌주기 위해 하나님이 행한 노아(Noah)의 방주를 생각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친구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질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간구하였다. 이 때 김점동은 두려움이 없어지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11) 김점동은 이러한 회심사건을 경험하고 이튿날 다른 친구들에게 심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자기 방으로 초대하여 선교사들이 한 것처럼 조그마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러한 모임을 매일 밤 갖기로 하자, 그들의 한국인 선생님은

6) 김홍택의 큰 딸은 강원도 농촌으로 시집을 가고, 둘째인 김마리아(1873-1921)는 결혼 후 정동여학당(정신여학교의 전신)에 입학하여 졸업 후 모교의 교사로 활동하였다. 넷째인 김배세(1886-1944)는 연동여학교(정동여학당의 후신)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안에 창설된 간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제1회 졸업생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는 고춘섭의 앞 책 pp.56-63을 참조할 만하다.

김홍택이 이화학당에 보낼 딸로 점동을 선택한 것은 혼인 적령기가 되어가는 첫째·둘째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고, 넷째 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동이 선택된 것은 김홍택으로서는 상식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7) The Story of the First Korean Woman Doctor. *The Gospel in All Lands* 1899년 6월:268.

8) Rosetta S. Hall. *The Life of Rev. William James Hall, M. D.* New York: Press of Eaton & Mains; 1897. p.197.

9) Ella A. Lewis. A Korean Girl. *Heathen Woman's Friend* 1893; 25-2:49 ; Rosetta S. Hall. 앞 책. pp.198-199.

10) The Story of the First Korean Woman Doctor. *The Gospel in All Lands* 1899년 6월:268 ; Rosetta S. Hall. 앞 책. p.199.

11) Rosetta S. Hall. 앞 책. p.199 ; Ella A. Lewis. 앞 글. p.49.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참석하였고, 다른 여성들도 찾아왔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여성 기도회 모임이었다고 평가된다.¹²⁾

김점동은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스크랜턴 대부인에게 세례를 통하여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청하였고, 1891년 1월 25일 올링거(F. Ohlinger) 목사로부터 에스더(愛施德)라고 세례를 받았다.¹³⁾ 이때부터 김점동은 김에스더라고 불리게 되었다. 김점동은 에스더라는 이름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세례받은 것을 매우 행복해 하였다.¹⁴⁾ 김점동의 도덕적·신앙적 변화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⁵⁾

셋째, 신지식의 습득으로 학생에서 의료통역 겸 보조로 역할이 변화되었다. 1885년 북감리교 의료선교사로 처음 한국에 들어온 스크랜턴(Dr. William B. Scranton, 1856~1922)은 정동에 시병원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스크랜턴은 당시 한국 사회의 소위 ‘남녀유별’ 사상 때문에 여성들이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여성만을 따로 치료하기 위한 병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스크랜턴 대부인은 여성해외선교회에 여의사 파견을 요구하였고, 1887년 10월 여의사 메타 하워드(Dr. Meta Howard)가 입국하였다. 메타 하워드는 이

화학당 관내에 여성을 위한 진료소를 열고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민비는 이 병원에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하사하며 그 활동을 격려하였다.

약 2년간 활동을 하던 메타 하워드가 건강상의 문제로 1889년 본국으로 귀국하였고, 그 후 1년이 지난 1890년 10월 로제타 셔우드(Dr. Rosetta Sherwood, 1865-1951)가 한국에 입국하여 여성 의료사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진찰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제타 셔우드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진료를 시작하여야 했다. 로제타 셔우드는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통역과 의료보조를 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영어가 숙달된 이화학당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였다. 이 때 의료통역을 담당하게 된 2~3명의 학생 중 한명이 김점동이었고, 이들은 하루에 5~6시간 정도 진료소에서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이렇게 점동은 의료 활동에 첫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로제타 셔우드는 한국에서 여성들이 치료받기 힘든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의료인의 필요를 절감하였다. 이에 이들 소녀들에게 생리학과 약리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진료소에서 약을 제조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실제적인 수업을 하였고, 그 결과 이들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용한 조수들

12) Rosetta S. Hall. 앞 책. p.200.

13) Ella A. Lewis. 앞 글. p.49 ; Rosetta S. Hall. 앞 책. p.201.

14) The Story of the First Korean Woman Doctor. *The Gospel in All Lands* 1899년 6월:269.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 왕후가 되었던 인물로, 유대인이 전멸할 위기에 자신의 민족 유대인의 억울함을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대변하여 그 민족을 살린 위인이다. 세례명을 ‘에스더’라고 정한 것은 어린 점동도 자신이 낙후되어 있는 나라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추측할 수 있다.

15) 24th Annual Report of the W.F.M.S. of M.E.C. for the year 1892-93. p.79.

이 되었다. 로제타 셔우드가 김점동 등에게 실시한 이 수업이 한국에서 여학생에게 처음 실시한 의학교육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¹⁶⁾

넷째, 의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장래 의료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김점동이 보구여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통역은 좋아하였지만, 외과 수술 보조는 싫어하였다. 그러나 언청이 수술 보조를 한 후부터는 마음이 달라졌다. 흉하게 갈라진 윗입술이 콧구멍에 붙어 있어 언청이라 놀림 받던 아이가 고운 입술을 가진 귀여운 아이가 된 것을 보고, 의사가 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점동은 반드시 혼자 힘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였다.¹⁷⁾ 점동은 로제타 셔우드의 통역을 하면서 한가한 시간에 의학을 공부하였고,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자 하는 꿈을 키워나갔다.¹⁸⁾

이 일화는 한국의 전통의료, 민간요법, 미신적 치료에 익숙했던 김에스더가 서양의학을 접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또한 어린 에스더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가치를 높게 두고 이를 실천하려는 성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세에서 17세 결혼하기 전까지 이화학당의 생활은 에스더의 일생을 좌우할 심성, 능력의 초석을 마련한 시기이다. 여성 선교

사들의 삶은 에스더의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즉 자신의 본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미지의 세계에 와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조국의 발전과 한국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에스더의 신앙은 힘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고, 한국에 하나님을 알리고 한국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갖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 에스더는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2. 결혼과 평양에서의 의료선교활동 보조로서의 생활

에스더의 나이가 16살이 되자, 가족들은 당시로서는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 있는 에스더를 걱정하기 시작하였고, 진료소의 환자들까지 에스더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당시 한국에서는 무당이나 병에 걸린 여자가 아니면서 16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꺼리가 되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에스더의 어머니는 만약 선교사들이 에스더의 신랑감을 찾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라도 결혼을 시키겠다고 하였다. 이에 스크랜턴 대부인을 비롯한 선교사들은 에스더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서둘러 신랑감을 찾

16) Rosetta S. Hall, 앞 책, p.200 ; 셔우드 홀, 김동열 옮김, 『닥터홀의 조선회상』, 좋은 씨앗, 2003, p.115.

17) Rosetta S. Hall, 앞 책, p.200 ; 셔우드 홀, 앞 책, p.115 ; Sauer. C. A, *Within the Gate*, 1934, p.97.

18) Faithful unto Death, *The Korea Mission Field*, vol 7-5, 1911. pp.139-140.

았다. 그러나 오히려 결혼 당사자인 에스더는 결혼을 하면 ‘언젠가 미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겠다’는 자신의 꿈에 지장이 생길까봐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였다.¹⁹⁾

이때 윌리엄 홀(Dr. William James Hall, 1860-1894)은 자신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한 박유산(1868-1900)을 에스더의 신랑감으로 추천하였다.²⁰⁾ 윌리엄 홀은 1891년 12월 한국에 입국하여 의료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1892년 로제타 셔우드와 결혼하여 에스더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에스더의 어머니가 신랑감이 한 때 떠돌이 노동자였다는 말을 듣고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가 훈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으며, 에스더는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하는 한국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라는 점에 수긍하고 박유산과의 결혼을 결심하였다. 이때 에스더의 심정을 로제타 홀에게 쓴 편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당신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3일 동안 저는 뜯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느질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습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씨를 저의 남편으로 삼고자 하시면 저의 어머니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의 지체가 높고 낮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어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체가 높고 낮음을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²¹⁾

이 편지를 읽은 로제타 홀은 그녀의 일기에 “사랑하는 에스더, 그녀는 날이면 날마다

19) Rosetta S. Hall, 앞 책, p.202.

20) 에스더의 남편인 박유산은 본래 윌리엄 홀이 1892년 가을 순회선교를 위해 평양으로 갈 때 마부로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박유산의 아버지는 지방의 훈장으로 박유산을 공부시키고자 하였으나, 공부에 뜻이 없던 박유산은 서울로 올라와 마부 일을 하고 있었다. 박유산은 윌리엄 홀과 평양으로 가면서 여러 면에서 감명을 받았다. 첫째, 한국 여관이 미국 여관과 비교해서 매우 불편하였을 텐데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서 모든 것을 즐거워하였다. 둘째, 윌리엄 홀은 저녁을 먹기 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 셋째, 일요일에는 아무리 날이 좋아도 성경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지 않은 채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 박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화한 태도로 하나님을 알리는 윌리엄 홀의 인품에 끌리게 되었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윌리엄 홀은 박유산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박유산이 성실한 것을 보고 자신의 일꾼으로 고용하였다. 박유산은 윌리엄 홀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선교 사업을 돕게 되었다.

에스더의 남편감을 구할 때 윌리엄 홀은 박유산을 불러 좋아하는 신부의 종류, 즉 하나님을 충심으로 섬기면서 일하는 여자와 단지 가족을 위해 음식과 바느질을 잘 할 수 있는 여자 중 누가 더 좋은지를 물었다. 박유산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신부가 더 좋다고 말하였다. 대답을 들은 윌리엄 홀은 에스더의 신랑감으로 박유산을 소개하였다. Rosetta S. Hall, 앞 책, pp.392-395.

21) 셔우드 홀, 앞 책, p.121 ;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초기 여성들이 추구하는 경력추구와 결혼 사이의 갈등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강선미, 앞 책, p.267.

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배우게 한다. 나는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적으며, 어리지만 훌륭한 신심을 가진 에스더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였다.²²⁾ 윌리엄 홀 부부의 증매로 17세 에스더는 26세 박유산과 1893년 5월 5일 약혼하고, 5월 24일 결혼하였다.²³⁾

결혼 후에도 에스더는 의학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료소에 있는 모든 약들의 라틴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합할 수 있었다. 그녀는 1년 동안 병원과 진료소에서 6000여건의 환자를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알게 된 대부분의 질병 이름과 현상들에 대해서 익숙해졌다. 또한 외과 수술에서도 한 손으로 에테르 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상처를 닦아내는 등 보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기술적인 의사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²⁴⁾

1894년 5월 로제타 홀은 남편을 따라 평양으로 선교활동을 떠나게 되었고, 에스더 부부는 선교 사업에 보조로 참여하게 되었다.²⁵⁾ 당시 평양은 로제타 홀이 ‘한국의 소돔’이라고 부를 만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지역이었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평양 관청에서는 홀 부부와 관련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며 박해하였다. 이 과정에

서 박유산도 상투가 잡힌 채 두들겨 맞고 발로 채이며 감옥으로 끌려갔다. 윌리엄 홀은 서울에 있는 선교사 단체와 주한미국공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기독교인들을 구출하였다.²⁶⁾

3일간의 박해가 끝나자 에스더는 로제타 홀이 평양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을 훌륭하게 도와주었다. 청일전쟁의 발발로 평양이 전쟁터로 변하자 선교단체는 의료선교를 시작한 지 1달 만에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윌리엄 홀은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 부상자와 전염병 환자를 돌보았고, 그 과정에서 발진티푸스에 걸려 서울로 실려 왔다. 로제타 홀이 있는 힘을 다해 치료하였지만 윌리엄 홀은 11월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남편이 죽자 로제타 셔우드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고, 에스더는 오랜 염원이던 미국에서의 의학공부를 위하여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로제타 셔우드는 에스더에게 의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하였다. 임신한 상태였던 로제타 홀은 그의 어린 아들 셔우드 홀, 에스더 부부와 함께 1894년 12월 16일 미국으로 출발하였다.²⁷⁾

에스더는 1893년 5월의 결혼, 1894년 5월

22) 셔우드 홀. 앞 책. pp.120-121.

23) Rosetta S. Hall. 앞 책. pp.392-395 ; Mattie Willcox Noble. *The Journal of Mattie Willcox Noble 1892-1934*.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편 자료총서 제17집.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3. p.31.

24) The Story of the First Korean Woman Doctor. *The Gospel in All Lands* 1899년 6월:270 ; Rosetta S. Hall. 앞 책. p.205.

25) Rosetta S. Hall. 앞 책. p.205 ; The Story of the First Korean Woman Doctor. *The Gospel in All Lands*, 1899년 6월:270-271.

26) The Story of the First Korean Woman Doctor. *The Gospel in All Lands* 1899년 6월. p.271.

27) Rosetta S. Hal. 앞 책. p.207 ; 셔우드 홀. 앞 책. p.177 ; The Story of the First Korean Woman

평양에서의 의료활동, 1894년 12월 미국으로의 유학행 등 약 1년 6개월 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정확히 판단하여 실천에 옮겼다. 결과적으로 로제타 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었으며, 남편 박유산의 외조에 힘입어 자신이 보구여관에서 언청이 수술을 보조하면서 결심한 의사로서의 꿈에 실질적인 한발을 내딛게 되었다.

III. 미국에서의 의학교육

에스더는 미국에 도착하였으나 의과대학에 입학하기까지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보구여관에서 로제타 홀에게 배운 기본적인 의학이론과 실습경험은 중요한 도움이 되었지만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하였다.

미국에 도착한 에스더는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1895년 2월 1일 에스더는 뉴욕 리버티(New York, Liberty)의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미국 고등학교 과정을 밟았다. 이때부터 에스더는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미국 관습에 따라 박에스더로 불리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선교 위주의 학습이라 내용이 단순했지만, 미국에서는 매달 과외비용을 지불하며 친구 집에서 합숙하거나 기숙사에서

공부를 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에스더의 학교 성적은 점점 좋아졌다.²⁸⁾ 그해 9월 에스더는 뉴욕시의 유아병원(Nursery and Child's Hospital)에 들어가 일 년 남짓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한편 월버그 부인(Mrs. Walberg)에게 라틴어, 물리학, 수학을 개인교습 받으며 의과대학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²⁹⁾

에스더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몇 번의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로제타 홀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의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고 자신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돕기 위해 훌륭하고 헌신적인 친구를 보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포기할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포기하면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배울 수 없다면 그 때 포기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아닙니다.³⁰⁾

에스더는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결코 의사가 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으로 에스더는 1896년 10월 1일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Doctor. *The Gospel in All Lands* 1899년 6월:271 ; Rhoda Kim Pak, M. D.. Medical Women in Korea.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Woman's Association* 1950;503:116.

28) Rosetta S. Hall. 앞 책. p.207.

29) 셔우드 홀. 앞 책. pp.179-181; *The Story of the First Korean Woman Doctor, The Gospel in All Lands*, 1899년 6월, p.271.

30) Rosetta S. Hall. 앞 책. p.208; *The Story of the First Korean Woman Doctor. The Gospel in All Lands*, 1899년 6월:272.

(Baltimore Woman's Medical College)에 최연소 학생으로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하는 한국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³¹⁾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은 1882년 설립되었으나, 미국의학협회에서 세운 의학교육 시설의 충족 요건에 미달되어 1910년 문을 닫게 되었다.³²⁾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은 처음에는 2년제 의학교로 개교하였으나, 점차 3년제, 4년제로 학제가 바뀌어갔다. 박 에스더가 입학할 당시인 1896년에는 4년제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였다.³³⁾

에스더의 1년 동안의 수업이 끝나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교수회장인 코델(Dr. Cordell)은 에스더가 지적이고 학업에 열심히 임하여 1학년의 학점을 이수하였으며, 앞으로 남아 있는 3년의 수업을 완전히 마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통 의술에 대하여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학 지식을 완전히 습득하고자 하는 에스더의 노력을 칭찬하며, 그녀는 수업이 끝나면 고통 받는 한국인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³⁴⁾

3년간의 수업이 끝날 즈음 볼티모어 지부 통신담당자인 스티븐스 부인(Mrs. E. B. Stevens)은 박에스더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박에스더는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교

에서 3년차의 과정을 완수하고 있다. 그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기독교인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며, 졸업 후 그녀가 한국 선교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녀의 남편은 폐결핵에 걸려 병원에 있다. 그녀는 독지가의 기부금을 제공받아왔지만, 모자라는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활기 있게 생활하고 있다.³⁵⁾

박에스더의 생활을 옆에서 본 현지인들의 평가를 통하여 박에스더는 힘든 역경 속에서도 의과대학에서 서양근대의학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것, 이후 한국 의료발전에 이바지할 모범적 인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에스더가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에서 이수하고 있던 의학과정은 무엇이였을까? 1898년 대학에서 제시한 의과대학 시간표를 통해 당시 박에스더의 학습상황을 알 수 있다. 1학년 때에는 화학, 생리학, 해부학, 태생학, 약리학과 같은 의학 학습과 관련된 기초이론과 실습을 익히고, 2학년 때에는 병리학, 위생학, 해부학, 조직학, 세균학 등 보다 의학적인 이론과 실습을, 3·4학년 때에는 외과, 소아과, 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의학이론과 임상 그리고 의학 법률

31) Faithful unto Death. The Korea Mission Field 1911;7-5:139-140.

32) Harold J. Abrahams. *The Extinct Medical Schools of Baltimore, Maryland*. Maryland Historical Society; 1969. p.73.

33) Harold J. Abrahams. 앞 책. p.71 ; W. Milton Lewis, M. D.. *The Graduates of the Woman's Medical College of Baltimore and Their Work*. p.8.

34) Rosetta S. Hall. 앞 책. pp.208-209.

35) The Story of the First Korean Woman Doctor. *The Gospel in All Lands* 1899년 6월:272 ; Faithful unto Death. *The Korea Mission Field* 1911;7-5:139-140.

표 1.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1898~1899년도 3학년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A.M. 9:00-		병리학	병리학실습	병리학실습		
10:00-		외과	병리학실습	병리학실습	외과	
11:00-	실습	여성의 질병	여성의질병	어린이 질병	실습	어린이 질병
12:00-		약리학	수술외과	약리학		
P.M. 1:00-			임상소아과			
2:00-	임상외과	임상의학		임상 위장	임상 부인과	눈·귀 질병
3:00-				임상 외과	* 신체 진단	
4:00-	산과	눈·귀 질병	산과	* 의학 법률	산과	

* 의학 법률은 11월 1일 이후
* 신체 진단은 2월 1일까지

등을 공부하며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갔다. <표 1>은 박 에스더가 1898-1899년에 이르는 3학년이었을 때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시간표이다.³⁶⁾

박에스더는 귀국 후에 의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사랑해준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교와 모든 친절한 교수님에 대해 진한 향수를 느낀다. 내가 일을 하면서 때때로 지칠 때에는 친절한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갈망하게 되고, 내가 몇몇 당황스런 의료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는 도움받기를 원하게 된다.”³⁷⁾라고 의과대학에서의 생활을 추억하였다.

이렇게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성실히 이행해가던 박에스더에게 커다란 시련이 다가왔다. 그것은 에스더가 의학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의지가 되었던, 그리고 에스더가 의사가 되는 것을 에스더 이상으로 기대하였던 남편 박

유산이 폐결핵에 걸린 것이다. 폐결핵은 당시만 해도 별다른 치료약이 없어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 에스더의 남편 박유산은 미국에 도착한 후 에스더가 의학 공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로제타 홀 가족의 농장과 이후 볼티모어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³⁸⁾

박유산은 박에스더가 공부하고 있는 의과대학과 연계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에스더는 낮에는 의학 공부 외에도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며, 밤에는 박유산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이중 삼중 고통을 극복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박에스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유산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에스더의 마지막 졸업시험 3주전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험을 매우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였다.³⁹⁾

박에스더는 여러 차례의 좌절을 딛고 한

36) Harold J. Abrahams. 앞 책. pp.87-89.

37) W. Milton Lewis, M. D.. 앞 글. p.8.

38) Rosetta S. Hall. 앞 책. p.207 ; 셔우드 홀. 앞 책. p.177 ; The Story of the First Korean Woman Doctor. *The Gospel in All Lands* 1899년 6월:271 ; Rhoda Kim Pak, M.D.. 앞 글. p.116.

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다. 이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의사로서의 소명감과 신앙으로 이겨내려는 의지와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로제타 홀이 남편 윌리엄 홀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의료선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바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00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졸업 즈음에, 박에스더에게 미국에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박에스더는 한국 여성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이를 거절하였다.⁴⁰⁾ 한편 한국에서는 로제타 홀과 스크랜턴 대부분이 박에스더의 귀국과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⁴¹⁾ 이제 박에스더는 1895-1900년의 6년간 미국 생활을 통해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키웠고, 그 능력을 한국에서 펼치기 위해 돌아오게 된다.

IV. 귀국 후 의료선교 활동

박에스더는 귀국 후 서울의 보구여관과 평양의 여성병원(일명 광혜여원) 등에서 의료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선교활동 역시 담당하였다. 여성해외선교회의 연례보고서를 보면 매년 다음 해에 활동할 지역과 활동내용을 지정하는데, 박에스더의 이름이 다른 선교사들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로서 박에스더가 당시 여성해외선교회에서 인정한 유일한 한국인 여성선교사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박에스더가 활동했던 10년 동안의 활동지역과 그 내용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보면 <표 2>와 같다.

1. 의료활동

박에스더는 1900년 11월 귀국 후 평양에서 로제타 홀과 의료활동을 시작하였다. 10개월 동안 진료소와 왕진을 통하여 2414건을 치료하였는데, 에스더가 이중 1/2 이상을 치료하였다. 이러한 박 에스더의 활동을 로제타 홀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⁴²⁾ 로제타 홀은 박 에스더가 병원 일을 잘 담당하자 자신의 아들과 병원 업무를 모두 맡기고 1900년 11월 23일 지방 선교순회활동을 떠났다. 로제타 홀은 일기에 박에스더를 다음과 같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음을 서술하였다.

에스더는 내가 없는 동안 병원의 일을 전담했으며 어린이 병동의 두 환자들을 돌보았고 또 왕진까지 맡아 하느라 정말 바쁘고도 보람된 날을 지냈다. 내가 없어도 병원의 모든 일이 이렇게 훌륭하게 처리된 것은 진정으로 내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다. 내가 보고서, 건축 계획, 또는 다른 사무일로 바빠져도 에스더가 병원 일을 전담해줄 수 있다.⁴³⁾

39) 셔우드 홀, 앞 책, p.212.

40) Faithful unto Death. *The Korea Mission Field* 1911:7-5:139-140 ; W. Milton Lewis, M. D.. 앞 글, p.8.

41) 31th Annual Report of W.F.M.S. of M.E.C. for the year 1899-1900, p.83.

42) 32th Annual Report of W.F.M.S. of M.E.C. for the year 1900-1901, p.190; 셔우드 홀, 앞 책, p.212.

표 2. 박 에스더의 활동 지역과 활동 내용⁴⁴⁾

연 도	활동 지역	활동 내용
1900.*-1901.*	평 양	여성병원 보조 의사
1901.*-1903.4	서 울	보구여관 의사
1903.5-1904.3	평 양	여성병원 보조 의사, 황해도 구역 전도사업
1904.4-1905.5	평 양	여성병원 보조 의사, 신계구역 전도사업
1905.6-1910.4	평 양	여성병원 보조 의사, 평양시 전도사업

1901년 보구여관을 담당하고 있던 여의사 메리 커틀러(Dr. Mary M. Cutler, 1865-1948)가 안식년으로 본국으로 떠나게 되자 여성해외선교회는 에스더를 보구여관의 의료선교사로 임명하였다. 로제타 홀을 따라 다니며 진료를 도왔던 어린 점동이 이제 어엿한 의사 박에스더 선생님이 되어 보구여관으로 돌아와 병원을 책임지고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게 된 것이다.

서울에 올라온 박에스더는 1903년 3월 20일 메리 커틀러가 다시 귀국할 때까지 보구여관에서 근무하였는데, 기록한 치료횟수만도 매년 3000건이 넘었다. 에스더는 그 외에도 환자의 집으로 직접 왕진을 갔으며, 이화학당 학생들도 치료하였다. 에스더는 휴가 때에도 매일 집으로 찾아와서 약을 처방해줄 것을 간청하는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정규 업무시간 외에도, 위급한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치료를 해야만 하였다.⁴⁵⁾

진료소에서의 치료 외에도 병원 시설이 없는 곳으로 에스더는 왕진을 많이 다녔다. 왕진은 일 년에 180건 정도 이루어졌다. 왕진 때문에 진료소를 비우면 진료소에 왔던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에서, 박에스더는 ‘육체 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구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병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병원들이 많이 세워져 어려운 환자들을 보다 많이 치료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⁴⁶⁾

1902년 콜레라가 유행하였을 때 박에스더는 성경부인과 함께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약을 전하였으며, 그들에게 복음과 평안함을 전하려고 노력하였다.⁴⁷⁾ 박에스더는 자신의 휴식보다 환자들의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 사이로 들어가 치료하였으며,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불안, 두려움까지

43) 셔우드 홀. 앞 글. pp.213-216.

44) Korea Woman's Conference와 W.F.M.S.의 연례보고서 내의 임명 내용을 확인하였다. 연례회의의 일정이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정확한 달을 알 수 없어 *로 표시하였다.

45) 33th Annual Report of the W.F.M.S. of M.E.C. for the year 1901-1902. p.161 ; Esther K. Pak. Chong Dong Dispensary, Seou..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3:5:13.

46) Esther K. Pak. Chong Dong Dispensary, Seoul.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2:4:7.

47) Esther K. Pak. Chong Dong Dispensary, Seoul.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3:5:14.

어루만져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에스더의 노력으로 보구여관의 의료사업은 나날이 발전하였다.

1903년 3월 메리 커틀러가 보구여관으로 돌아오면서 박에스더는 다시 평양의 의료선교사로 임명되어 로제타 홀과 의료 활동을 담당하였다.⁴⁸⁾ 박에스더는 이후 병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1909년까지 평양의 여성병원인 광혜여원에 근거를 두고 의료·선교활동을 하였다. 박에스더는 평양으로 돌아온 첫 해 로제타 홀과 병원, 진료소, 왕진을 통해서 4857건을 치료하였다.⁴⁹⁾

1904년에는 그 활약은 더욱 대단하여 로제타 홀과 박에스더는 지난해의 2배인 8638건을 치료하였다. 이는 기록되어 있는 건수이며 실질적인 치료와 처방의 수는 훨씬 더 많았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여러 합병증에 걸려 찾아왔으며, 치료한 내용을 보면 수술과 안과질환이 제일 많았고, 피부병, 컷병, 부인병, 그리고 치아병 등 다양한 분야의 병을 치료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로제타 홀 사이에 세심하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박 에스더의 도움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⁵⁰⁾

당시 광혜여원은 1년에 약 60명의 입원환자들을 치료하였다. 입원환자 중 24명은 수술을 받았고 그들 중 몇몇은 여러 번 수술

을 받아야 하였다.⁵¹⁾ 박에스더는 병원에 수술을 도울 훈련된 간호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였고, 로제타 홀과 함께 두 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술을 하였다. 현대화된 기구와 훈련된 간호사가 부족하였지만 수술은 좋은 결과를 얻었고 횃수를 거듭할수록 수술 기술은 더욱 향상되었다.

박에스더와 로제타 홀의 수술 중 방광질누관 폐쇄 수술(방광과 질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누관을 없애주는 수술—필자주)은 특기할 만하였다. 한 젊은 여성은 6~7년 동안 누관수술을 여러 번 하였는데 첫 번째 수술은 기대하였던 것만큼 잘 되지 않았으나 10번째 수술에서는 완벽하게 치료되었다. 다른 나이든 부인의 경우 오랫동안 방광질 누관으로 불편을 겪었고, 그녀의 방광이 완전히 병들었을 때 단 한 번의 수술로 완치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로제타 홀과 박에스더는 몇몇 관 폐쇄증의 경우 인공관을 이용한 수술을 하기도 하였다.⁵²⁾ 서양의 학에서 행하는 수술은 당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치료방법으로 한국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었다, 그 치료 결과는 ‘신’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놀라운 일이었다. 로제타 홀과 박에스더는 의료 활동을 통하여 한국인 특히 여성들에게 감히 바랄 수 없었던

48) Mary M. Cutler, Margaret J. Edmund. Po Ku Nyo Koan-Hospital, Dispensary and Nurses' Training School, Seoul.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4:6:7; 34th Annual Report of the W.F.M.S. of M.E.C. for the year 1902-1903. p.155.

49) Rosetta S. Hall. Woman's Medical Work, Pyeng Yang.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4:6:48.

50) Rosetta S. Hall, Medical-Evangelistic Work for Women, Pyeng Yang,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5:7:46.

51) Rosetta S. Hall. 앞 글. p.47.

52) W. Milton Lewis, M. D.. 앞 글. pp.8-9.

육체적 고통과 불편을 없애주었다.

박에스터는 여성들을 진료하면서 에스터는 세상에서 격리되어 있던 한국 여성들이 건강과 위생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병에 걸리면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고, 더 심해지면 무속이나 한의사에게 의지하였다. 결국 한의사들이 포기한 이후에야 진료소를 찾았다. 에스터는 무지로 인하여 병이 심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접하였다. 그 당시 한국 가정에서는 해피망측한 미신적 치료방법이 많아 박에스터는 그들을 계몽시켜가면서 치료해야만 하였다. 에스터가 보고한 미신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발목을 빼어 염증을 일으킨 5살 여자아이를 고치기 위해, 그 어머니는 뜨거운 돼지 또는 개고기로 만든 국물을 마시게 하는 민간요법을 사용하였다. 그래도 진정되지 않으면 한의사에게 데리고 간다. 한의사는 침을 놓는다. 침을 놓는 것은 그러한 병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치료법이다. 뒤 늦게 병원을 찾아오기는 하였으나 결국 이 소녀는 완전히 관절을 잃게 되었다. 이미 염증이 심해져 굽을 대로 굽은 부위를 제거하는 우리의 치료법은 한국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치료법이다.⁵³⁾

사례 2. 한의사가 포기한 폐결핵 말기의 젊은 부인이 박에스터를 찾아왔다. 에스터가 그녀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맥박이 아직 뛰고 있는 부인을 생매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박에스터는 급히 회복약들을 투여하려 했을 때 놀랍게도 그녀의 입에 생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쌀은 젊은 부인이 영혼의 땅으로 여행갈 때 요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중 하나이다.⁵⁴⁾

사례 3. 콜레라가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자, 사람들은 쥐가 옮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이 그림을 문 입구에 붙여 놓고 병이 물러가기를 바랐다.⁵⁵⁾

박에스터는 한국 여성의료교육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1903년 커틀러가 보구여관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양에 있던 로제타 홀이 병에 걸렸고, 커틀러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잠시 평양으로 가게 되었다. 에스터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커틀러가 자리를 빈 동안 보구여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⁵⁶⁾

이 시기 보구여관에서는 간호선교사 에드먼즈(Margaret J. Edmunds)에 의하여 한국 최초로 간호원 양성소가 조직되고 있었고, 박에스터가 이에 일정한 도움을 주었다.⁵⁷⁾

53) Esther K. Pak., Chong Dong Dispensary, Seoul.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2:4:6.

54) Esther K. Pak. 앞 글. p.7.

55) Esther K. Pak. Chong Dong Dispensary, Seoul.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3:5:14.

56) Mary M. Cutler. Po Ku Nyo Kuan and Dispensary.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3:5:15.

57) Mary M. Cutler, Margaret J. Edmund. Po Ku Nyo Koan-Hospital, Dispensary and Nurses' Training School, Seoul.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4:6:7; W.F.M.S., Medical

에드먼즈는 박에스더, 에비슨(Dr. Oliver R. Avison, 1860~1956) 등의 도움으로 간호원 양성소의 수업과정과 여러 조직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하였다.⁵⁸⁾ 보구여관에 설립된 간호원 양성소는 한국 최초로 설립된 간호학교로 이후 이곳에서 배출된 간호원들은 초기 의료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선교활동

박에스더는 의료 활동을 하면서도 선교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선교활동의 내용은 크게 의료활동을 펼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들을 대면하며 기독교를 알리는 방법, 성경학교의 교사로서 한국 여성들을 계몽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 여성해외선교회에서 할당받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의료기관에서의 선교활동이다. 당시 선교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들은 진찰을 하기 전 대기실에서 성경부인들에 의하여 예수에 관하여 들을 기회를 가졌고, 하나님에 관하여 더 배우기를 열망하는 여성들에게 소책자와 책들을 빌려주었다. 1901~1902년 사이 감리교

에서 전도한 69명의 여성 중에는 박에스더의 진료소를 통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⁵⁹⁾ 또한 에스더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였다.⁶⁰⁾

둘째, 성경학교를 통한 선교활동이다. 평양 선교부는 1903년부터 봄, 가을 평양에 성경학교를 개설하여 약 열흘 동안 평양과 부근 지방의 여성들을 모아놓고 성경말씀과 위생학, 감리교의 역사, 예수의 일생 등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박에스더는 성경학교에 참여하여 위생학과 성경을 강독하였다.

박에스더는 의사로서 당시 한국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성들에게 위생학을 강의하였다. 깨끗한 생활을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위생 규칙들도 차근차근 가르쳤다.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성경학교에서 누가복음 등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이 성경학교도 매 회마다 1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평양과 인근 지방에서 모여들어 활성화되었다. 특히 박에스더가 맡은 반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가장 진실한 선생님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⁶¹⁾

Educational Work For Woman, *Fifty Years of Light*, 1938, pp.98-99.

58) Mary M. Cutler, Margaret J. Edmund. 앞 글. p.11.

59) 33th Annual Report of the W.F.M.S. of M.E.C. for the year 1901-1902:161 ; Lulu E. Frey. Evangelistic Work of First Church, Seoul.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2:4:5.

60) Esther K. Pak. Chong Dong Dispensary, Seoul.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2:4:6.

61) Mattie Wilcox Noble. Pyeng Yang Church and Bible Institute.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4:6:44 ; Rosetta Sherwood Hall. Medical-Evangelistic Work for Women, Pyeng Yang.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5:7:50 ; Mattie Willcox Noble. Report of Evangelistic Work, Bible Institutes, and Three Day Schools, Pyeng Yang.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6:8:61 ; Mattie Willcox Noble. Report of Evangelistic Work, Bible Institutes, and Three Day Schools, Pyeng Yang.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6:8:61 ;

1909년 가을 성경학교는 박에스터의 마지막 공적인 활동이 되었는데, 그녀는 성경학교에 참여하여 열성을 다하여 일하였고 수업에서 큰 성과를 내었다. 박에스터가 몸이 아파 서울로 떠나자 박에스터와 함께 지낸 모든 사람들은 에스터를 그리워하였다.⁶²⁾

셋째, 여성해외선교회에서 할당받은 지역에서의 순회선교활동이다. 박에스터의 지방 순회 선교활동은 1903년 가을 성경학교를 마친 후 11월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여성 해외선교회는 박에스터에게 황해도의 700리를 지정하였다. 에스터가 방문한 지역은 삼동(Samdong), 배미(Paimi), 투모골(Tumotkol), 상금촌(Sangkumchon), 토리놀(Torrynool) 등이었다. 에스터는 방문한 모든 장소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부인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배미지역에는 작은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 사는 성경 부인과 그 남편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였다.⁶³⁾

1904년에는 신계를 순회하며 선교활동을 하였다. 신계는 이미 3년 전부터 선교활동을 하였지만 전도하기 힘든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에스터는 그 곳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한 나이든 부인이 “나처럼 아들 하나 없는 늙은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나요?”라고 묻자, 에스터는 그녀와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후 그녀에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또 이전에는 기독교 서적을 선물로 줄 수도 없었던 어떤 부인이 복음을 열심히 듣고 책을 사고 난 후 “나의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오늘밤 받은 부드러워졌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두 복음을 열심히 들었고, 자신들이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다. 에스터는 자신과 같은 일꾼이 적어 하나님을 더욱 알리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⁶⁴⁾

투모골은 순회여행 지역 중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 이곳에는 전도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6-7명의 부인들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9세 된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있었다. 아들은 신심이 깊은 기독교 소년이었고, 그의 어머니를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아들이 죽었다. 그녀는 매우 우울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혹하다고 느끼며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에스터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과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다.⁶⁵⁾

Mattie Willcox Noble. Report of Evangelistic Work, Bible Institutes, and Three Day Schools, Pyeng Yang.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7;9:47-48 ; Rosetta S. Hall, Esther K. Pak. Woman's Medical Work, Pyong Yang. *The Korea Mission Field* 1909;5-7:109-111 ; Mattie Willcox Noble. Evangelistic Work, Bible Institutes, and Six Day Schools, Pyeng Yang District.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9;11:62.

62) Mattie Willcox Noble. Report of Evangelistic Work, Day Schools and Bible Institutes on Pyeng Yang District.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10;12:67.

63) Esther K. Pak. Whang Hai Do Circuit.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4;6:46.

64) Esther K. Pak. 앞 글:47.

65) Esther K. Pak. 앞 글:46-48.

박에스더는 선교활동을 통해서 복음 진파만이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 중요한 개선사항이었던 위생에 대하여 계몽하였고, 전통 관습에 얽매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죽음으로 삶의 의미를 잃은 여성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며 한국인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3. 투병생활과 당시의 평가

박에스더는 몸을 돌보지 않고 의료선교활동을 하던 중 1905년부터 건강을 잃기 시작하였다. 1905년 에스더는 열과 급성 늑막염과 같은 폐결핵 초기 증상으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눕게 되는 7월 초까지 의료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병원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2개월 동안 병원 문을 닫아야 하였다.⁶⁶⁾ 에스더는 한국에서의 휴양으로는 병이 별 차도가 보이지 않자 중국의 남경으로 요양을 갔다. 남경의 휴양지이던 이후 병세는 많이 호전되었고, 박에스더는 자신의 병이 과중함에도 건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다.⁶⁷⁾

휴양에서 돌아온 후에도 박에스더는 정상적인 의료사업을 감당할 수 없었다. 1907년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수술과 응급상황 등 의료활동에 참여하여 로제타 홀에게 도움을 주었고, 전도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⁶⁸⁾

1908년 10월 22일 광혜여원이 신축되어 새 건물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할 때, 에스더는 건강이 나아지자 정규 의료 업무를 맡아 보게 되었다. 박에스더가 오전에, 로제타 홀이 오후에 환자 진료를 맡아 하였으나 몇 주 지나지 않아 박에스더는 다시 아프기 시작하였다. 결국 광혜여원은 오전 진료를 하지 못하고 오후에만 진료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였다.⁶⁹⁾ 이후 박에스더는 1910년 사망할 때까지 의료사업을 일정하게 계속할 수 없었고,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못할 때에는 번역, 주일학교, 성경기관의 일을 도왔다.⁷⁰⁾

1909년 당시 정부는 선교사 아펜젤러·언더우드, 윤치호·김필순 등 사회유지의 발기로,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을 세우고 있는

66) Rosetta S. Hall. Medical-Evangelistic Work for Women and Children, Pyeng Yang.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6;8:53.

67) 박에스더가 남경으로 휴가를 간 사실은 1905년 여름동안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의 의료사회과의 책임교수인 루이스 박사(Dr. Lewis)가 여자의과대학의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여자 의과교육의 성과를 증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여자 졸업생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녀의 졸업 이후 그녀들의 활동과 그녀들이 겪은 기회들 중 흥미로운 경우들을 기록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에스더가 그에 대한 답장을 한 기록이 있어 확인할 수 있었다. W. Milton Lewis, M. D.. 앞 글. p.1.

68) Rosetta S. Hall, Medical-Evangelistic Work for Women and Children, Pyeng Yang.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6;8:53 ; Zola payne. Medical Educational Work For Woman. *Fifty Years of Light*. 1938. p.99 ; Rosetta S. Hall. Medical Work and Blind Class, Pyeng Yang.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07;9:38-42.

69) Zola payne. Medical Educational Work For Woman. *Fifty Years of Light*. 1938. p.100 ; Sarah B. Hallman. Pyeng yang Woman's Hospital.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10;12:51.

70) Zola payne. Medical Educational Work For Woman. *Fifty Years of Light*. 1938. p.99.

여성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4월 28일 '초대 여자외국유학생 환영회'를 베풀었다. 관민합동으로 경희궁에서 개최한 이 환영회에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의료 활동을 펼치면서 여성 계몽에도 기여하고 있는 박에스터, 구미 5개국에서 유학했던 윤정원,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은 하란사 3인이 함께 초대되었다.

환영회는 다수의 관계인사, 사회유지, 각 여성단체 및 종교단체의 내외빈 7-800여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식순은 김윤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성준·지석영·최병원 등의 환영연설, 3인에게 기념메달을 각각 증정, 여학생들의 축하 노래, 초대받은 3인의 답사와 다과잔치로 이어졌다. 이들은 여성 교육의 효과를 알리는 인물들로 상징되며 서울 장안 사람들의 흠양을 받았다.⁷¹⁾ 당시 한국 사회에 일찍이 유학을 다녀와 신학문을 익히고 한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하고 있던 박에스터의 헌신적 활동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때 에스터는 폐결핵에 걸려 투병 중이었는데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있었다.

박에스터의 병이 심해져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서울로 돌아와 둘째 언니 신마리아 집에서 병상생활을 해오다가 1910년 4월 13일 눈을 감았다. 에스터는 오랫동안 아팠고, 그녀의 지인들은 그녀가 회복하

리라고 거의 희망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었다.⁷²⁾ 당시 박에스터를 추모하기 위해 추도회가 5월 27일 오후 8시에 청년회관에서 열려 그녀의 업적을 되새기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⁷³⁾

박 에스터의 활동은 한국의 의료와 사회봉사의 새 장을 열었으며, 많은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쳐 의학을 공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⁷⁴⁾

V. 결론

한국에서 최초의 여의사로 평가되고 있는 박에스터의 생애를 이화학당에서의 생활,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 귀국 후 활동으로 구분으로 살펴보았다. 박에스터는 한국이 개항하고 미국과의 수교로 입국이 가능하였던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이화학당에서 신학문과 기독교를 접하였으며, 이화학당 관내에 세우진 보구여관에서 의료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조하며 서양의사로서의 꿈을 키웠고 실질적인 학문적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박에스터는 자신에게 의학을 처음 경험하게 해준 로제타 셔우드 홀의 도움으로 1894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유학기간 동안 학문적 좌절, 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죽음 등 많은 고통이 있었으나 의사가 되어 한국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와 신

71) 김윤식. 속음청사. 1909년 4월 28일 ; 잡보. 황성신문 1909년 4월 28일 ; 女子界盛事. 대한홍학보 1909;3 ; 셔우드 홀. 앞 책. pp.239-240.

72) Sarah B. Hallman. Pyeng yang Woman's Hospital. *The Korea Woman's Conference* 1910;12:54 ; Zola payne. Medical Educational Work For Woman. *Fifty Years of Light*. 1938. p.100 ; Faithful unto Death. *The Korea Mission Field* 1911;7-5:139-140.

73) 박부인 추도회.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24일.

74) Rhoda Kim Pak, M.D.. 앞 글. p.116.

양를 가지고 4년간의 의학과정을 훌륭하게 마치고 의사가 되어 귀국하였다.

박에스더는 1900년 귀국하여 1910년 병사하는 약 10년간의 시간 동안 여성해외선교회에서 파견한 의료선교사로서 활동을 헌신적으로 이행하였다. 박에스더는 서울 보구여관과 평양의 여성병원에서 한국의 미신적 치료행위를 계몽하며 의료 활동을 펼쳤으며, 지방순회선교활동과 성경학교에서 교사로서 활동하며 선교활동도 열심히 하였다. 박에스더의 활동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실감하게 하였으며, 여성교육·서양의학·기독교에 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1909년 4월 28일에는 관민합동으로 개최된 초대유학생환영회에 초대되어 표창장을 받았다.

박에스더는 한말 격동기에 태어나 의료선교사로서 활동하다 34년간의 짧은 생애를 마쳤지만, 한국 여성의학의 문을 열었으며 참된 의술을 실천함으로써 한국 의료·여성·기독교사에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박에스더에 관한 연구는 단지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말 한 여성이 자신의 제한된 환경을 극복하고 전문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한국 여성 의료사의 기반을 형성하는 다양한 인물들과의 연관 하에서 한국 의료사 발전을 살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준다.

박에스더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그 삶을 재구성하면서 박에스더에 관한 사료의 발굴이 아직도 미흡하여 과연 인간 박에스더, 의료선교사로서의 박에스더를 과연 올바르게 조망하였는지, 그리고 필자 역시 부족한 사료로 박에스더의 전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겼다. 그러나 일단 박에스더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이 논문이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후 초창기 여성병원과 여의사들에 대한 다각적인 활동이 연구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색인어 : 박에스더, 의료선교, 이화학당, 로제타 셔우드 홀, 보구여관, 평양여성병원(광혜여원)

투고일 2007. 11. 17.

심사일 2007. 11. 19.

심사완료일 2007. 12. 9.

= ABSTRACT =

Life and Medical Missionary Activities of Esther K. Pak(1877-1910)

LEE Bang Weon*

Esther K. Pak(1876~1910) is believed as the first medical doctor in Korea. Esther's life can be largely reviewed in three parts: school-hood at EwhaHaktang(currently Ewha Womans Universit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medical missionary work after coming back to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The foreign Methodist missionaries was able to enter Korea after opening of its ports and establishing it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Esther met modern sciences and Christianity at EwhaHaktang, which was founded by those missionaries. She could dream of being an American-style medical doctor in the future, while she assisted medical missionaries at PoKuNyoKwan in EwhaHaktang. She could get substantial academic help from those missionaries.

With the support of Dr. Rosetta Sherwood Hall, who first introduced the world of medial science to Esther in a real sense, Esther went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the field in 1894. While learning it, she suffered from academic frustration, economic difficulty, her husband's death and so on, but she eventually got over those adversities and completed the four years of academic courses to become a medical doctor. Her religious faith and will to help Koreans as a doctor encouraged her to finish what she had originally planned.

Esther came back to Korea in 1900 and began to work earnestly as a medical missionary delegated from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At PoKuNyoKwan in Seoul and Woman's Hospital in Pyongyang, She performed medical work and enlightenment campaign against the superstitious healing conduct. Esther also took part in the circuit missionary performances. She devoted herself for evangelical work at Bible Institute as well. Esther's activity made people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She helped people to recognize education for woman, occidental medical treatment and Christianity in a positive way. On April 28, 1909, based on these excellent performances for the social development, she was invited, honored and granted a testimonial at the first welcoming ceremony, which was held by the united body of civilians and officials, for students studying abroad. But on April 13, 1910, about one year after the ceremony, she died of illness. She was 34.

Although she was born at the turbulent last period of Korea Empire and lived for

only 34 years, Esther's medical missionary work was evaluated as the opening of woman's participation in medical science in Korea. Not only in the 'woman's' but also in 'whole' field of medical science, her performance left significant marks in woman's and Christian history in Korea as well.

Key Words : Esther K. Pak, Medical Missionary, EwhaHaktang, Dr. Rosetta Sherwood Hall, PoKuNyoKwan, Woman's Hospital in Pyongyang

*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